

시민 안전 지키고 일상 편의 높인다

전주시설공단, 중점 업무 계획 발표... 안전우선 윤리경영·소통공감 동행협력 등 4대 경영 목표 수립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시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혁신적인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중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4일 오전 전주시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우선 윤리경영, 소통공감 동행협력, 고객만족 시설관리, 혁신역량 지속발전'이라는 4대 경영 목표를 축으로 수립했다.

특히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 지역 협력 강화 100%, 고객 만족도 92점 확보, AI·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10건 추진 등 수치로 목표를 구체화하며 책임 경영의 의지를 드러냈다.

공단은 2026년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 안전에 두고, 실천적인 안전 문화 조성을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CCTV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설별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방하는 첨단 안전망을 가동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지하 주차장과 체육시설의 화재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야외 체육시설의 경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별도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과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ISO 22301) 인증을 유지하며 재난이나 돌발적인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공공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상시 점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관점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해 조직 내부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한편, 시설 유지관리 계획에 따른 정밀 점검을 연중 실시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공단의 방침이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생 경영도 본격화한다.

공단은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확대해 상생 협력 구매 이행을 100% 달성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 서기로 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 예산제'와 'ESG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소모임 365'를 통해 현장

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SNS와 블로그 등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 게시판 등 도시 공간을 활용한 영상 홍보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공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고도화 역시 주요 과제다.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해 투명 페트병 재활용 수거 등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고, 시민 참여형 플로깅(Plogging) 실천 사업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혁신에도 마련했다.

전주총회원은 장애 일직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화장 시작 시간을 기존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8시 30분 앞당긴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해 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지

향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 AI 기반 수영장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수영장 혼잡도 정보 제공, 주차장 권중별 자동 감연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특히 마을버스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

공단은 인사·복무·급여·재무를 통합 관리하는 ERP 시스템을 가동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지양하는 인공지능 통합형 'AI 비서'와 행정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2026년 중점 업무 계획은 공단이 보유한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전주의 미래 가치를 키워나가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청소년 통학비 지원' 확대 시행

전주시복지재단, 120명 대상 1인당 연간 지원액 27만원으로 상향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삼)은 올해 지역 내 저소득가정 고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유지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청소년 통학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재단은 고물가로 가중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올해는 120명으로 늘리고, 1인당 연간 지원액도 27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중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이고,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다.

이를 통해 재단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이에 앞서 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된 통학비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674명의 청소년에게 통학비를 지원했으며, 사업 개시 이후 해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청소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전주형 교통복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정책 제시

전주시정연구원, 지방도시서 겪는 불편 '마찰 비용' 관점 재정리

최근 방한 관광정책의 초점이 홍보와 볼거리 중심에서 '여행자 중심 관광수용태세 개선'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도시에서 겪는 불편을 '마찰 비용'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콘텐츠·정책 패키지를 담은 'JRI 이슈브리프 제16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에서 먼저 외국인 관광객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불편 사항을 총 네 가지로 정리했다.

4가지 불편 사항은 △다국어 정보와 안내가 흩어져 '무엇을·왜·어떻게'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정보·언어 단절' △지도는 있어도 '나를 장소로 이동해야 할 이유'가 약해 동선이 끊기는 '길찾기·이동 부담' △결제·인증·예약 절차가 복잡하거나 통일되지 않아 작은 불편이 즉시 포기로 이어지는 '절차 장벽' △야간 활동과 안전 안내, 연결 교통이 부족해 체류가 짧아지는 '야간 불안'이다.

이에 연구원은 이러한 불편 사항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도시 공간을 무대로 관광 안내를 '텍스트 제공'이 아닌 행동으로 수행하는 체험(미션)으로 바꾸는 'ULX(도시형 위치기반 체험관광)' 모델을 제안했다. /권희성 기자

ULX의 핵심은 '스토리&미션 - 길찾기&이동 - 실감기술&장치 - 데이터&피드백'의 결합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안내를 따라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해하게 된다.

또 GPS·QR/NFC·AR 등 장치는 다국어 안내를 '읽기'보다 '수행'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 부담을 낮추고, 미션의 완주·이탈·체류시간 등 도구는 실제 불편이 발생하는 지점을 보여줘 안내·사인·운영을 반복 개선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연구원은 전주 적용(안)으로 '온보딩 1 + 주간 5 + 야간 1'의 에피소드 구조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션(온보딩)'은 전주역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도착 거점에서 언어 설정과 교통·결제·안전 핵심 안내, 코스 추천과 사용법을 3~5분 안에 제공해 여행 초반 이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주간 에피소드'는 △기록문화(전주사교/실록) △삼일유산(경기전/태조어진) △출판·공예(완판본·한지) △시민서사(동학 등) △고대사(후백제) 등 전주 고유 자산을 미션으로 연결해 도시 순환과 체류 확대를 유도한다.

끝으로 '야간 에피소드'는 전라관영·객사 권역을 중심으로 안전 동선을 전제로 설계해 밤에도 편안하게 머무는 전주를 목표로 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4일 오전 8시, 전주만성초등학교 통학로 일대에서 '안전 점검의 날'을 맞아 민·관 합동 어린이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시, '아이 먼저, 안전 먼저' 통학로 캠페인 전개

전주시가 3월 개학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4일 오전 8시, 전주만성초등학교 통학로 일대에서 '안전 점검의 날'을 맞아 민·관 합동 어린이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재난안전과와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전주덕진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대거 참여했다.

'아이 먼저, 안전 먼저'라는 슬로건

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특히 처음 통학로에 나서는 저학년 어린이가 급증하는 3월의 경우 교통·생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어깨띠와 복장을 갖춘 참여자들은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어린이 보호 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백일상·돌상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전주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양육 가정에 백일상과 돌상을 무료로 대여해주기로 했다.

시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주 아이앳(애)' 백일·돌상 대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백일상·돌상 세트는 전통적인 분위기의 상차림과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된 콘셉트 등 다양한 스타일이 구비됐으며, 테이블보와 장식 소품, 돌잡이 용품 등 기념 촬영에 필요한 필수 물품을 포함해 총 8종의 세트도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한복과 드레스, 정장 슈트 등 아이 의상까지 함께 제공해 별도의 준비 없이도 가정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백일·돌상은 1기부터 4박 5일간 대여 가능하며, 백일상은 2~4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 돌상은 11~13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이면 각각 대여할 수



있다. 대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한 후 센터에 방문해 대여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남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관공각

내아